인허스님은?

## 후학제접 항상 겸손
## '오대산의 자비보살'



같은 한암 문도(門徒)의 사형이자 속가 형이기도 한 탄허 스님과 함께 한암 스님을 스승으로 모신 인허 스님은 현대 한국불교의 큰 산맥인 한암·탄허 두 스님으로부터 지대한 영향을 받았다. 조계종 초대종정을 지낸 한암 대선사의 선지(禪旨)와 당대의 대강백이자 학승인 탄허 스님의 교학을 가까이서 심득한 인허 스님은 두 선사의 가르침에 감사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화광동진(和光同塵)의 정진을 닦았다.

1916년 전북 정읍에서 출생한 스님은 탄허 스님이 출가한 2년 뒤인 36년 상원사로 입산, 39년 한암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수지했다. 39년 월정사 강원을 수료한 뒤 45년 한암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하고 51년 한암 스님이 열반할 때까지 상원사 청량선원에서 정진했다.

83년 탄허 스님이 입적할 때까지 그 그늘에서 묵묵히 참선, 독경, 염불의 정진을 계속해 온 인허 스님은 95년 한암문도회 대표로 추대되었으며, 96년 월정사 회주로 추대돼 후학 양성에 정성을 쏟고 있다.

86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매일 새벽 예불에 이은 독경, 참선을 멈추지 않는 인허스님은 항상 겸손하고 온화한 자세로 후학들을 제접, 오대산의 자비보살로 일컬어진다.

철저하게 준수하고, 틈틈이 경전공부를 하는 것이었다. 점심 공양 후 차담 시간에 한암스님은 조사어록을 들고 나와 계속 법문을 했다 하니, 한국불교의 으랜 선교겸수(禪敎兼修)의 전통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선(禪)에서 언어와 경전을 배타시한 것은 언어와 경전의 껍데기를 버리라는 말이지, 그 알맹이를 버리라는 게 아냐."

인허 스님의 설명을 들으니 한암 스님이 〈금강경오가해〉와 〈보조법어〉를 현토(懸吐), 편집하여 간행하고 제자인 탄허스님에게 〈신화엄경합론〉을 한글로 번역토록 당부한 깊은 뜻을 알 것 같다. 인허 스님의 선교겸수에 대한 생각은 무수한 역대 경전을 한글로 번역했던 탄허스님의 뜻과 다름이 없었다.

"선은 돈교(頓敎)요, 교는 점교(漸敎)야. 부처님의 가르침은 원래 하나였지만 바다를 못보고, 냇물과 강물을 조금 본 것으로 무수한 주장이 생겨났어. 참선, 간경, 염불은 구경(究竟)은 똑 같다."

인허 스님은 참선은 상근기, 간경은 중근기, 염불은 하근기가 하는 방편이지만 드달점은 같다고 말한다. 참선은 새마을호, 간경은 무궁화호, 염불은 비둘기 호여서 도착 시간은 다르지만 종착역은 모두 서울역이라는 것.

인허 스님은 이처럼 사람마다 근기가 다르기 때문에 수행에 있어 업장 소멸은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말한다. 아무리 업장이 두터워 근기에 둔탁(鈍濁)이 있더라도 염불 지송과 기도로 내생에서의 성공을 기약할 수 있다는 말씀이다. 또한 업장 소멸을 위해서는 참다운 참회가 전제돼야 한다며 인허 스님은 천수경의 '참회게(懺悔偈)'를 외우셨다.

"백겁 천겁 쌓인 죄업 한 생각에 없어져서 마른 풀을 불 태운 듯 흔적조차 없어지다. 죄의 실체 본래 없어 마음따라 일어난 것 마음 한번 없애보니 죄업 또한 사라지네. 죄도 업도 없어지고 마음까지 비워지니 이것이 다름 아닌 참뉘우침 자리로다."

어느 때를 정해놓고 용맹정진 하는 것은 상기병(上氣病)을 일으키기에 찬성하지 않고 평소의 꾸준한 정진을 강조했다는 한암스님의 가르침을 들려주는 인허 스님. 쉼 없이 산길을 걷다보면 정상에 오르듯이 깨달음의 길도 이와 같음을 웅변하신다.

도(道) 자리는 재미도 없고 화두 역시 맛이 없지만 무심히 정진하다 보면 무색 무취 무미의 도를 체득할 수 있다는 인허 스님은 이를 '지음(知音)'의 경지로 표현했다. 귀와 마음이 열린 사람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지음'. 도의 본체에 다가선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그 자리는 언설로는 말할 수 없기에 '구업 짓지 말라' 고만 하신다.

"젊어서 업장 소멸하고 참선해야 해. 참선도 하고 경도 읽고 염불도 하며 계정혜를 닦아야 해. 알지 못하고서 법문해선 안돼. 말을 잘못 해도 구업(口業)이지만, 상대방이 못 알아들어도 구업이야."

인허 스님이 말씀을 아끼신 까닭을 이제야 할 것 같다. 증자가 말했듯이 도는 '하나로 꿰뚫는 것(一以貫之)'. 도에 가까우면 말이 적어지는 이유이리라. 스님은 법문을 아껴야 하는 이유를 다시금 설명했다.

"부처님 말씀이 담긴 경전에 법문이 다 들어 있어. 경전대로 실천하면 그게 법문이야."



◇항상 온화하게 후학을 제접하는 인허스님(앞줄 왼쪽에서 세번째)이 월정사 하안거 결제식 후 제자들과 기념촬영한 장면.

실천이 참다운 법문임을 설하는 인허 스님의 목소리에 힘이 실려있다. 착각 도인, 큰스님들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참된 법문은 어떤 것이어야 할지를 알 듯하다. 후학들을 위해 올바른 수행의 자세를 일러 달라는 기자의 질문에 스님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신다.

"다 자기 하기 나름이야. 그외는 구업일 뿐이지."

최근 수행기풍이 날로 흐트러지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선방 풍조에 대해 경책을 내려달라는 요청에 스님은 한참 묵묵부답하시더니, 이윽고 하시는 말씀이 "기한(飢寒)에 발도심(發道心)이야. 옛날과 지금은 근기가 달라."

그랬다. 스님이 수행하시던 50~60년전과 지금은 천양지차였다. 절간의 방사마다 화장실과 욕실이 들어서고,

"말 잘못해도 구업
남이 못알아들으면
그것도 구업"

먹을 것은 풍족해졌다. 그러나 치열한 정진력은 희미해 지고, 어른을 존중하는 미풍양속마저 사라지고 있다. 절마다 큰 부처님, 큰 법당을 만드는 대작불사를 일으키지만 도인을 배출하는 참된 불사는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란 게 스님의 날카로운 지적이다.

"사회가 금수세상으로 갈수록 부처님 도량만은 중생들의 의지처와 삶의 올바른 지향점을 일러주는 나침반이 되어야 하기에 우리 스님들이 열심히 정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게야."

인허 스님은 고령이고 건강도 예전만 못하지만 언제나 찾아오는 신도들과 수좌들을 기꺼이 맞으며 가르침을 펴신다. 스님은 늘 사람답게 살 것을 강조하시는데 고해에 빠져 있음에도 날로 허우적거리는 중생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이리라. (이 때 한 비구니 스님과 보살이 스님을 친견하러 와 잠시 대화가 중단됐다. 안부인사를 받은 후 스님은 하던 말씀을 계속했다.)

"개벽과 같은 대전환이 필요해. 총과 칼이 사라지고 신명(神明)이 악인을 벌하는 그런 시대가 오려면 새로운 변화가 필요해. 그럴려면 부디 바르게 살아야지. 대장부로서 뜻을 세워 생사일대사(生死一大事)를 해결하려면, 헛되이 소중한 시간을 허비해야 되겠느냐는 말이지."

다시 한번 출·재가 수행자를 위한 가르침을 청하자 인허 스님은 〈한암일발록(漢岩一鉢錄)〉에 수록된 한산시를 기억을 되살려 외우시며 옛 선사들의 각고(刻苦) 정진(精進)을 따르라고 하신다.

男兒大丈夫 作事莫莽勞(남아대장부 작사막망노)
勤挺鐵石心 直取菩提路(경연철석심 직취보리로)
邪路不用行 行之枉辛苦(사로불용행 행지왕신고)
不要求佛果 識取心王主(불요구불과 식취심왕주)

사내 대장부들이여! 하는 일을 가벼이 말라!
철석 같은 마음 굳게 세워, 곧바로 보리의 길로 ...
사특한 길을 걷지 말라! 그 길엔 고통 뿐이리.
굳이 불과(佛果)를 구하려 말고, 마음의 주인을 깨달아라.

오직 대도(大道)의 길, 보리(菩提)의 길을 향하여 정진하는 이들에게 들려주는 간곡한 법문. 결과와 목적에 대한 집착으로 불과(佛果)를 구하지 말라는 경책이 하산 길 내내 여운으로 남는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현진스님의
## 스님이야기
상법스님



나는 자장면을 먹을 때마다 상법스님이 떠오른다. 그와 얽힌 일화 한 토막이 지금까지 풋풋한 추억으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학인 때는 김치 한 조각도 맛있는 그런 시절이다. 그래서 국수나 라면 같은 밀가루 음식은 별식에 가까웠다. 더군다나 울력이 많았던 초년 학인들 에게는 차담이 모자랄 때가 더러 있었다.

그 시절 상법스님과 나는 휴식 시간을 틈타 자장면을 먹기 위해 사하촌(寺下村)으로 몰래 내려가곤 했다. 무슨 작전을 감행하듯 은밀하게 치르는 우리들만의 스릴과 재미가 있었다. 그러다 어느 날 상강례(일종의 조례 같은 것)시간에 상법스님의 이름이 공개되면서 이 일이 대중에 알려지게 되었다. 그 때 상법스님은 해인사 안내소임이었고, 윗반스님을 모시고 있던 아랫반이었는데 전날에 자장면을 먹으면서 양파를 너무 많이 먹은 게 탈이었던 모양이다. 자극적인 양파 냄새 때문에 한 방에서 지내던 윗반 스님에게 들키게 되었고 다음날 아침 상강례 시간에 상법스님의 허물이 대중적으로 지적된 것이다.

그 때 나도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다. 분명 상법스님과 행동을 같이 했던 내 이름을 부르게 될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상법스님이 "어

### 새벽예불후 항상 뒷산 올라
### 스스로 약속 엄격한 수행자

제 행동은 저 혼자 하였습니다" 하고 큰소리로 말하는 것이었다. 그 일로 인해 상법스님은 법당에서 일주일간 3000배 참회를 하였다. 그 날 당당하게 일어나서 허물을 대중에게 밝히지 못한 내 자신이 부끄럽고, 이 점이 지금까지 그에게 남아 있는 마음의 빚이다.

그 시절 우리는 왜 그리 자장면을 좋아했는지 모르겠다. 합천읍까지 택시를 타고 가서 몇 그릇 후딱 비우고 돌아오는 날은, 음식값보다 택시 요금이 몇 곱절 많이 든다. 그래도 그 일을 즐겨 했던 것은 자장면 한 그릇의 맛보다는, 통제된 병영에서 벗어나는 병졸들의 그런 기분을 공감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다.

지금은 지리산에서 수행하고 있는 상법스님을 보게 되면 운동 선수를 만나는 것처럼 건강하고 단단함이 느껴진다. 산을 오를 때나 공을 찰 때는 마치 20대 청년처럼 기운이 넘치고 체조를 할 때는 선수 못지 않게 유연한 동작을 만들어 낸다. 이러한 그의 체력은 운동을 좋아하는 타고난 성품 때문이다. 그래서 못하는 종목이 별로 없다. 검도와 태극권은 사범을 할 만큼의 실력이고 요가와 선 체조도 강사급이다.

특히 그는 등산을 즐겨 한다. 전문 산악인들도 상법 스님의 산 타는 실력에 놀란다. 지리산을 앞산처럼 누비고 다닐 정도로 그의 트레킹은 프로 수준이다. 아마 출가하지 않았다면 분명 운동선수가 되었을 것이다.

운동은 수행자의 공부와 닮아 있다. 운동할 때의 집중력과 지구력은 화두 공부의 생리와 비슷하다. 운동으로 따진다면 수행 역시 장거리 코스에 가깝다. 그래서 상법스님은 운동을 수행 길의 공부 법으로 운용하는지도 모르겠다.

나는 그가 함부로 주먹질하거나 힘 자랑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힘을 이용해 만용을 부리지도 않는다. 그것은 그 자신이 수행자라는 사실을 잊지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진정한 무인처럼 상법스님은 자신을 다스리기 위해 운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상법 스님에 견주어 보면 나는 정말 무딘 운동신경을 가지고 있다. 해인사는 예나 지금이나 축구를 좋아하는 스님들이 많다. 본사로서는 유일하게 축구 전용 운동장을 갖추고 단오날은 산중 스님들이 축구 시합을 한다. 그래서 해인사 스님들의 축구 실력은 절 집에서는 1등이나 다름없다. 그 실력이 소문 나서, 어느 해는 월드컵 유치



기념으로 연예인 축구단과 스님들이 축구 시합을 벌여 화제가 된 적도 있다. 그 해인사에서 축구 시합을 할 때면 상법스님은 언제나 공격수 역할을 하면서 그라운드를 누비고 다닌다. 공을 잡으면 비호처럼 움직이는 그의 모습이 그때나 지금이나 부러운 건 마찬가지다.

한 때 나는 상법 스님의 운동 일과에 동참한 적이 있다. 새벽 예불을 마치고 절 뒷산까지 등산하는 일이었는데, 놀란 것은 이 일을 단 한번도 빼먹는 일이 없다는 사실이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우의를 입고, 눈이 오는 날에는 아이젠을 신발에 붙이고 산을 올랐다. 더러 쉬고 싶거나 늑장을 부리고 싶은 날도 있었지만 그 앞에서는 용납이 안되는 일이었다. 그 당시 그는 정말 지독한 교관이나 다름없었다. 그렇게 지내면서 그에게서 안일한 마음과 자세를 고칠 수 있었다. 자기 질서에 엄격하지 못하면 수행의 일상이 흔들린다는 사실을 그를 통해 배웠다. 든든한 둑도 손가락 만한 구멍이 무너지게 하듯이 마음의 틈도 작은 게으름에서 생긴다는 법문을 몸소 일러준 것이다. 내 몸이 한없이 나태해질 때마다 그가 살고 있는 지리산으로 떠나는 꿈을 꾼다.

▨ 월간 '해인' 편집위원


격월간 참여불교 2001년 7,8월호 일반서점에서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ENGAGED BUDDHISM
참여불교

값 5,000원
1년 정기구독 25,000원

먼저,
팔만대장경부터 파(破)하라!
- 권두칼럼 -

"절복(折伏)의 칼을 들어야 할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특별기고 I 해인사 청동대불의 막전막후
기획연재 유럽의 참여불교
세계의 공동체를 찾아서
논단 종교와 세금, 관계정립의 새로운 대안모색
특별기고 II 한국불교, 그 전통으로부터의 탈출
언론에 비친 불교
'중진승려 강남 유흥장 출입사건' 무엇을 남겼나
만남 논산 쌍계사를 가꾸는 사람들
이 책을 말한다 승락시바라사 지음 '평화의 씨앗'
교계 초점 달라이 라마 2001 방한 왜 무산됐나
기획취재 한국불교 속의 해외원조단체들을 찾아서

중진급 스님들의 고급 유흥장 출입, 범어사 소속 스님의 국고보조금 횡령 등 다시 기억하기도 싫은 사건들에 이어 이번엔 가야산이 과문의 진원지가 돼 여러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한국불교의 마지막 희망일 지도 모를 해인사가 지금 미증유의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 더없이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돌이켜볼 것도 없이, 사태가 이 지경에까지 이른 데에는 재가불자들의 책임이 수미산처럼 높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외부로부터의 도전에 급급하여 응당 절복(折伏)의 칼을 들어야 할 때 '내 식구 감싸기'로 나아가지는 않았는지, 반성해 보아야 합니다. 하여 이제부터는 불법에 의지하여 오직 과사현정(破邪顯正)의 자세로 나아가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글을 쓰는 순간에도 텔레비전 뉴스는 어느 사찰에서 끔찍한 살인사건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 특집
- 교단운영의 기본윤리, 어디까지 실천할 것인가
- 불교교단의 재정운영 청규를 위하여
- [좌담] 교단지도자들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윤리

정기구독신청 02-725-6231

참여불교재가연대
Buddhist Solidarity for Reform
www.buddha21.org
전화 02-725-6231-2 팩스 725-6233 buddha21@budgate.net
(우110-14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18 수성빌딩 302호



불교 속의 문화, 문화 속의 불교
불교와 문화
2001년 7·8월호



이제 인터넷에서도 『불교와 문화』를 만날 수 있습니다

www.kbpf.org

인터넷이 일방적인 정보제공이 아니라 쌍방향이 서로 교류하여 발전을 도모하는 장인만큼 『불교와 문화』도 지역과 시간의 제약을 뛰어넘어 자유로운 사이버공간에서 독자 여러분과 함께 호흡하겠습니다.

별책부록
불교 관련 인터넷 사이트 목록
(국내 540개, 해외 123개)



현재 활동 중인 불교 사이트들을 직접 검색하여 불교 신행 및 포교, 학술, 문화활동 등에 적극 활용토록 하기 위해 제작된 불교 관련 국내외 인터넷사이트 목록





해외불교 법문 - 2001년 달라이 라마의 평화메시지
"상호 존중과 자비는 세계 평화를 향한 열쇠입니다."



특집
불교 생태운동의 현주소와 나아갈 방향
환경위기가 우리들 공동의 업(業)이라는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종교계가 연대하며 대안운동으로서의 생태운동을 전개한다. 타종교계의 생태운동 현황을 통해 불교 생태운동의 나아갈 방향을 알아본다.

화보 - 지상중계 / 불교계 최초 인터넷 관리자 연수
인터넷을 활용한 불교 포교의 전초 기지 - (가칭)불교인터넷협회 발족

What would Buddha do?
부처님은 핸들을 잡으시면 어떻게 운전하실까?

성낙주의 문화재소설 - 완당 김정희의 '세한도(歲寒圖)'
시간 위에 지은 집

특별기고 / 사찰의 불사, 이제는 바꾸자
무분별한 사찰 불사를 전면 비판하고 대안 불사를 촉구한다.

기고 / 한국에서 불교와 기독교 신자수가 지역에 따라 다른 이유

인물포커스 - 한국불교의 거목을 찾아서 · 보시/신행
무주상 보시를 몸소 실천한 평양 여걸- 만덕 백선행
티끌 한 점 남김없이 무소유를 실천한 사람 - 법련화 김부전

격월간 불교와문화 전화 : (02) 719-2606, 팩스 : (02) 719-5052 인터넷 홈페이지 : www.kbpf.org ▶ 정가 7,000원, 1년 6호간 구독료 42,000원